

「한글 맞춤법」 신규 대조표

현행(1988년~)	개정안
한글 맞춤법 〈제1장〉~〈제6장〉	한글 맞춤법 〈제1장〉~〈제6장〉 현행과 같음.
<신 설>	<u>부칙</u> <u>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u>
□ 부 록	□ 부 록
문 장 부 호 문장 부호의 이름과 <u>그</u>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문 장 부 호 <u>문장 부호는 글에서 문장의 구조를 드러내거나 글쓴이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이다.</u> 문장 부호의 이름과 사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u>I. 마침표〔終止符〕</u>	
<u>1. 온점(.), 고리점(。)</u> <u>가로쓰기에는 온점, 세로쓰기에는 고리점을 쓴다.</u>	<u>1. 마침표(.)</u> <u><삭 제></u>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 <u>이</u> 다. <u>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u> 집으로 돌아 <u>가</u> 자.	(1) 서술, 명령, 청유 등을 나타내는 문장의 끝에 쓴다. <u>예</u> 젊은이는 나라의 기둥 <u>입니다</u> . <u>예</u> 제 손을 꼭 잡으 <u>세요</u> . <u>예</u> 집으로 돌아 <u>갑시다</u> . <u>예</u>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 <u>다</u> .
<신 설>	<u>[붙임 1]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u> <u>예</u> ㄱ.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 <u>겼</u> 다. <u>ㄴ. 그는 “지금 바로 떠나자”라고 말하며 서둘러 짐을 챙</u> 겼다.
<신 설>	<u>[붙임 2]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에는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u>

현행(1988년~)	개정안
	<p>예 ㄱ.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p> <p>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하여 애를 씀</p> <p>예 ㄱ.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p> <p>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p> <p>예 ㄱ.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p> <p>나. 신입 사원 모집을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p> <p>예 ㄱ.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p> <p>나. 내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제출할 것</p>
<p>다만, 표제어나 표어에는 쓰지 않는다.</p> <p>압록강은 흐른다(표제어)</p> <p>꺼진 불도 다시 보자(표어)</p>	<p>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p> <p>예 압록강은 흐른다</p> <p>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p> <p>예 건강한 몸 만들기</p>
<p>(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 쓴다.</p> <p>1919. 3. 1. (1919년 3월 1일)</p>	<p>(2)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쓴다.</p> <p>예 1919. 3. 1. 예 10. 1.~10. 12.</p>
<신 설>	<p>(3) 특정한 의미가 있는 날을 표시할 때 월과 일을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사이에 쓴다.</p> <p>예 3.1 운동 예 8.15 광복</p>
<신 설>	<p>[붙임] 이때는 마침표 대신 가운데점을 쓸 수 있다.</p> <p>예 3·1 운동 예 8·15 광복</p>
<p>(3) 표시 문자 다음에 쓴다.</p> <p>1. 마침표 ㄱ. 물음표 가. 인명</p>	<p>(4) 장, 절, 항 등을 표시하는 문자나 숫자 다음에 쓴다.</p> <p>예 가. 인명 예 ㄱ. 머리말</p> <p>예 I. 서론 예 1. 연구 목적</p>
<p>(4)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p> <p>서. 1987. 3. 5. (서기)</p>	<삭 제>
<신 설>	[붙임] ‘마침표’ 대신 ‘온점’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현행(1988년~)	개정안
<p>2. 물음표(?)</p> <p><u>의심이나 물음을 나타낸다.</u></p>	<p>2. 물음표(?)</p> <p><삭 제></p>
<p>(1) <u>직접 질문할 때</u>에 쓴다.</p> <p><u>이제</u> 가면 언제 돌아오<u>니</u>?</p> <p><u>이름이</u> 뭐지?</p>	<p>(1) <u>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u> 쓴다.</p> <p>예 <u>점심 먹었어?</u></p> <p>예 <u>이번에 가<u>시</u>면 언제 돌아오<u>세요</u>?</u></p> <p>예 <u>제가 부모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u></p> <p>예 <u>남북이 통일되면 얼마나 좋을까?</u></p> <p>예 <u>다섯 살짜리 꼬마가 이 멀고 험한 곳까지 혼자 왔다?</u></p> <p>예 <u>지금?</u> 예 <u>뭐라고?</u> 예 <u>네?</u></p>
<p>(2) <u>반어나 수사 의문(修辭疑問)을 나타낼 때</u> 쓴다.</p> <p><u>제가 감히 거역할 리가 있습니까?</u></p> <p><u>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u></p> <p><u>남북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u></p>	<p><삭 제></p>
<p>[붙임 1] 한 문장<u>에서</u>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u>겹쳤을 때</u>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u>지만</u>, <u>각</u>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u>마다</u> 쓴다.</p> <p>너는 <u>한국인</u>이냐, <u>중국인</u>이냐?</p> <p>너는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p>	<p>[붙임 1] 한 문장 <u>안에</u>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u>이어질 때</u>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u>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u> 쓴다.</p> <p>예 너는 <u>중학생</u>이냐, <u>고등학생</u>이냐?</p> <p>예 너는 <u>여기에</u>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u>왔니</u>?</p>
<p>[붙임 2] <u>의문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u>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u>는</u> 물음표 대신 <u>온점(또는 고리점)</u>을 쓸 수도 있다.</p> <p><u>이 일을 도대체</u> 어쩐단 말이나.</p> <p><u>아무도 그 일에 찬성하지 않을 거야. 혹 미친 사람이면</u> 모를까.</p>	<p>[붙임 2] 의문의 정도가 약할 때는 물음표 대신 <u>마침표를</u> 쓸 수 있다.</p> <p>예 도대체 <u>이 일을</u> 어쩐단 말이나.</p> <p>예 이것이 과연 내가 찾던 행복일까.</p>
<p><신 설></p>	<p><u>다만, 제목이나 표어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u></p> <p>예 <u>역사란 무엇인가</u></p> <p>예 <u>아직도 담배를 피우십니까</u></p>
<p>(3) 특정한 어구 <u>또는 그</u> 내용에 대하여 의심<u>이나</u>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u>경우에</u> 소괄호 안에 쓴다.</p>	<p>(2) 특정한 어구<u>의</u>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u>쓰기 어려울 때</u> 소괄호 안에 쓴다.</p> <p>예 <u>우리와 의견을 같이할 사람은 최 선생(?) 정도인 것 같다.</u></p>

현행(1988년~)	개정안
<p><u>그것</u> 참 훌륭한(?) <u>태도야</u>. 우리 집 <u>고양이</u>가 가출(?)을 했어요.</p> <p><신 설></p>	<p><u>예</u> 30점이라, <u>거</u> 참 훌륭한(?) <u>성적이군</u>. <u>예</u> 우리 집 <u>강아지</u>가 가출(?)을 했어요.</p> <p>(3)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p> <p><u>예</u> 최치원(857~?)은 통일 신라 말기에 이름을 떨 쳤던 학자이자 문장가이다. <u>예</u> 조선 시대의 시인 강백(1690?~1777?)의 자는 자청이고, 호는 우곡이다.</p>
<p>3. 느낌표(!)</p> <p><u>감탄이나 놀람, 부르짖음, 명령 등 강한 느낌 을 나타낸다.</u></p> <p>(1) <u>느낌을 힘차게 나타내기 위해 감탄사나 감 탄형 종결 어미 다음</u>에 쓴다.</p> <p><u>앗!</u> <u>아, 달이 밝구나!</u></p> <p>[붙임] <u>감탄형 어미로 끝나는 문장이라도 감 탄의 정도가 약할 때</u>는 느낌표 대신 <u>온점(또 는 고리점)</u>을 쓸 수 <u>도</u> 있다.</p> <p><u>개구리가 나온 것을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u></p> <p>(2) 강한 명령문 <u>또는</u> 청유문에 쓴다.</p> <p>지금 즉시 대답해! <u>부디 몸조심하도록!</u></p> <p>(4) 물음의 말로써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 내는 경우에 쓴다.</p> <p>이게 누구야! 내가 왜 나빠!</p> <p>(3) 감정을 넣어 <u>다른 사람을 부르거나 대답할 적에</u> 쓴다.</p> <p><u>춘향아!</u> <u>예, 도련님!</u></p>	<p>3. 느낌표(!)</p> <p><삭 제></p> <p>(1) <u>감탄문이나 감탄사의 끝에</u> 쓴다.</p> <p><u>예</u> 이거 정말 큰일이 났구나! <u>예</u> 어머!</p> <p>[붙임] 감탄의 정도가 약할 때는 느낌표 대신 <u>쉼 표나 마침표</u>를 쓸 수 있다.</p> <p><u>예</u> 어, 벌써 끝났네. <u>예</u> 날씨가 참 좋군.</p> <p>(2) <u>특별히</u> 강한 <u>느낌을 나타내는 어구,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u>에 쓴다.</p> <p><u>예</u>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u>예</u> 이야, 정말 재밌다! <u>예</u> 지금 즉시 대답해! <u>예</u> 앞만 보고 달리자!</p> <p>(3) 물음의 말로 놀람이나 항의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에 쓴다.</p> <p><u>예</u> 이게 누구야! <u>예</u> 내가 왜 나빠!</p> <p>(4) 감정을 넣어 <u>대답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를 때</u> 쓴다.</p> <p><u>예</u> 네! <u>예</u> 네, 선생님! <u>예</u> 흥부야! <u>예</u> 언니!</p>
<p>II. 쉼표〔休止符〕</p>	

현행(1988년~)	개정안
<p><u>1. 반점(,), 모점(、)</u> 가로쓰기에는 반점, 세로쓰기에는 모점을 쓴다. 문장 안에서 짧은 휴지를 나타낸다.</p>	<p><u>4. 쉼표(,)</u> <삭 제></p>
<p>(1) 같은 자격의 어구<u>가</u> 열거<u>될</u> 때에 쓴다.</p> <p>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p>	<p>(1) 같은 자격의 어구<u>를</u> 열거<u>할</u> 때 <u>그 사이</u>에 쓴다.</p> <p><u>예</u> 근면, 검소, 협동은 우리 겨레의 미덕이다. <u>예</u> 충청도의 계룡산, 전라도의 내장산, 강원도의 설악산은 모두 국립 공원이다. <u>예</u> 집을 보러 가면 그 집이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지, 살기에 편한지, 망가진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u>예</u> 5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이다.</p>
<p><신 설></p>	<p>다만, (가) 쉼표 없이도 열거되는 사항임이 쉽게 드러날 때는 쓰지 않을 수 있다.</p> <p><u>예</u> 아버지 어머니께서 함께 오셨어요. <u>예</u> 네 돈 내 돈 다 합쳐 보아야 만 원도 안 되겠다.</p>
<p><신 설></p>	<p>(나) 열거할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p> <p><u>예</u>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p>
<p>다만, 조사로 연결될 적에는 쓰지 않는다.</p> <p><u>매화와 난초와 국화와 대나무를 사군자라고 한다.</u></p>	<p><삭 제></p>
<p>(13) 숫자를 나열할 때에 쓴다.</p> <p><u>1, 2, 3, 4</u></p>	<p><삭 제></p>
<p>(2) 짝을 지어 구별할 <u>필요가 있을</u> 때에 쓴다.</p> <p>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p>	<p>(2)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쓴다.</p> <p><u>예</u> 닭과 지네, 개와 고양이는 상극이다.</p>
<p>(14) 수의 폭이나 개략의 수를 나타낼 때에 쓴다.</p> <p>5, 6 세기 6, 7 개</p>	<p>(3) 이웃하는 수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때 쓴다.</p> <p><u>예</u> 5, 6세기 <u>예</u> 6, 7, 8개</p>
<p>(9) 문장 첫머리의 접속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쓴다.</p> <p>첫째, 몸이 튼튼해야 된다. <u>아무튼, 나는 집에 돌아가겠다.</u></p>	<p>(4) 열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어구 다음에 쓴다.</p> <p><u>예</u> 첫째, 몸이 튼튼해야 한다. <u>예</u>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야 한다.</p>
<p>다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접속어(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등) 뒤에는 쓰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p>	<p><삭 제></p>

현행(1988년~)	개정안
그러나 너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4) 대등하거나 종속적인 절이 이어질 때에 절 사이에 쓴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흰 눈이 내리니, 경치가 더욱 아름답다.	(5)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절과 절 사이에 쓴다. 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예 저는 신뢰와 정직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살아온바, 이번 비리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예 떡국은 설날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이걸 먹어야 비로소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한다.
(11) 되풀이를 피하기 위하여 한 부분을 줄일 때에 쓴다.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6) 같은 말이 되풀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부분을 줄여서 열거할 때 쓴다. 예 여름에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5) 부르는 말이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애야, 이리 오너라. 예, 지금 가겠습니다.	(7)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쓴다. 예 지은아, 이리 좀 와 봐. 예 네, 지금 가겠습니다.
<신 설>	(8) 한 문장 안에서 앞말을 ‘곧’, ‘다시 말해’ 등과 같은 어구로 다시 설명할 때 앞말 다음에 쓴다. 예 책의 서문, 곧 머리말에는 책을 지은 목적이 드러나 있다. 예 원만한 인간관계는 말과 관련한 예의, 즉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 호준이 어머니, 다시 말해 나의 누님은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이 된다. 예 나에게도 작은 소망, 이를테면 나만의 정원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
(6) 제시어 다음에 쓴다. 빵, 빵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용기, 이것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은이의 자산이다.	(9) 문장 앞부분에서 조사 없이 쓰인 제시어나 주제어의 뒤에 쓴다. 예 돈, 돈이 인생의 전부이더냐? 예 열정, 이것이야말로 젊은이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예 지금 네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해. 예 저 친구, 저러다가 큰일 한번 내겠어. 예 그 사실, 넌 알고 있었지?
<신 설>	(10)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앞에 오는 어구 다음에 쓴다.

현행(1988년~)	개정안
	<u>예</u> 그의 애국심, 몸을 사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
(7) 도치된 문장에 쓴다. 이리 오세요, 어머니. 다시 보자, 한강수야.	(11) 도치문에서 도치된 어구들 사이에 쓴다. <u>예</u> 이리 오세요, 어머니. <u>예</u> 다시 보자, 한강수야.
(3) 바로 다음 <u>의</u> 말을 꾸미지 않을 때에 쓴다.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경주 불국사의 무영탑. 성질 급한, 철수의 누이동생이 화를 내었다.	(12) 바로 다음 말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낼 때 쓴다. <u>예</u> 갑돌이는,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u>예</u> 철원과,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강원도 산간 지대에 예년보다 일찍 첫눈이 내렸습니다.
(12)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 쓴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철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이다.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해 본다면, 남을 괴롭히는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깨달을 것이다.	<삭 제>
(10)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에 쓴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 <u>하</u> 지 않 <u>소</u> . 철수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 <u>었</u> 지만, 그들을 맞았다.	(13) 문장 중간에 끼어든 어구의 앞뒤에 쓴다. <u>예</u>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u>않</u> 아. <u>예</u> 영호는 미소를 띠고, 속으로는 화가 치밀 <u>어</u>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그들을 맞았다.
<신 설>	[붙임 1] 이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쓸 수 있다. <u>예</u> 나는 — 솔직히 말하면 — 그 말이 별로 탐탁지 <u>않</u> 아. <u>예</u> 영호는 미소를 띠고 — 속으로는 화가 치밀 <u>어</u> 올라 잠시라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지만 — 그들을 맞았다.
<신 설>	[붙임 2] 끼어든 어구 안에 다른 쉼표가 들어 있을 때는 쉼표 대신 줄표를 쓴다. <u>예</u> 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
<신 설>	(14)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곳을 나타낼

현행(1988년~)	개정안
	<p><u>때</u> 쓴다.</p> <p>예 내가, 정말 그 일을 오늘 안에 해낼 수 있을까? 예 이 전투는 바로 우리가, 우리만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p>
<신 설>	<p>(15)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쓴다.</p> <p>예 선생님, 부, 부정행위라니요? 그런 건 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u>다</u>.</p>
<신 설>	[붙임] ‘ <u>쉽표</u> ’ 대신 ‘ <u>반점</u> ’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p>(8) 가벼운 감탄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쓴다.</p> <p><u>아, 깜빡 잊었구나.</u></p>	<삭 제>
<p>(15) 수의 자릿점을 나타낼 때에 쓴다.</p> <p><u>14,314</u></p>	<삭 제>
<p><u>2. 가운데점(·)</u></p> <p><u>열거된 여러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낸다.</u></p>	<p><u>5. 가운데점(·)</u></p> <p><삭 제></p>
<p>(1) <u>쉽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누어질 때에</u> 쓴다.</p> <p><u>철수·영이, 영수·순이</u>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p> <p><u>공주·논산, 천안·아산·천원 등 각 지역구에</u>서 2 명씩 국회 의원을 뽑는다.</p> <p><u>시장에 가서 사과·배·복숭아, 고추·마늘·파, 조기·명태·고등어를</u> 샀다.</p>	<p>(1) 열거<u>할</u> 어구<u>들을</u>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u>타</u>낼 때 쓴다.</p> <p>예 <u>민수·영희, 선미·준호</u>가 서로 짝이 되어 윗놀이를 하였다.</p> <p>예 <u>지금의 경상남도·경상북도, 전라남도·전라북도, 충청남도·충청북도</u> 지역을 예부터 <u>삼남이라</u> 일러 왔다.</p>
<p>(3) <u>같은 계열의 단어</u> 사이에 쓴다.</p> <p><u>경북 방언의 조사·연구</u> <u>충북·충남 두 도를 합하여 충청도라고 한다.</u> <u>동사·형용사를 합하여 용언이라고 한다.</u></p>	<p>(2) <u>짝을 이루는 어구들</u> 사이에 쓴다.</p> <p>예 <u>한(韓)·이(伊)</u>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예 <u>우리는 그 일의 참·거짓을 따질 겨를도</u> 없었다. 예 <u>하천 수질의 조사·분석</u> 예 <u>빨강·초록·파랑이</u> 빛의 삼원색이다.</p>

현행(1988년~)	개정안
<신 설>	<p>다만, 이때는 가운데점을 쓰지 않거나 쉼표를 쓸 수도 있다.</p> <p>예 한(韓) 이(伊) 양국 간의 무역량이 늘고 있다. 예 우리는 그 일의 참 거짓을 따질 겨를도 없었다. 예 하천 수질의 조사, 분석 예 빨강, 초록, 파랑이 빛의 삼원색이다.</p>
<신 설>	<p>(3)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쓴다.</p> <p>예 상·중·하위권 예 금·은·동메달 예 통권 제54·55·56호</p>
<신 설>	<p>[붙임] 이때는 가운데점 대신 쉼표를 쓸 수 있다.</p> <p>예 상, 중, 하위권 예 금, 은, 동메달 예 통권 제54, 55, 56호</p>
<p>(2)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낱을 나타내는 숫자에 쓴다.</p> <p>3·1 운동 8·15 광복</p>	<삭 제>
3. 쌍점(:)	6. 쌍점(:)
<p>(1) <u>내포되는 종류를 들 적에</u> 쓴다.</p> <p>문장 부호: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문방사우: <u>붓, 먹, 벼루, 종이.</u></p>	<p>(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u>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u> 쓴다.</p> <p>예 문방사우: <u>종이, 붓, 먹, 벼루</u> 예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예 혼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u>남궁, 선우, 황보</u>) 예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u>지시한다.</u></p>
<p>(2) 소표제 뒤에 간단한 설명이 붙을 때에 쓴다.</p> <p>일시: 1984 년 10 월 15 일 10 시. 마침표: 문장이 끝남을 나타낸다.</p>	<삭 제>
<p>(3) 저자명 다음에 저서명을 적을 때에 쓴다.</p> <p>정약용: <u>목민심서, 경세유표.</u> 주시경: <u>국어 문법, 서울 박문서관, 1910.</u></p>	<삭 제>
<신 설>	<p>(2) 회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p>

현행(1988년~)	개정안
	<p>예 김 과장: 난 못 참겠다.</p> <p>예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p>
<p>(4)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 <u>나, 둘 이상을 대비할 때에</u> 쓴다.</p> <p>오전 10:20 (오전 10 시 20 분) <u>요한 3:16 (요한복음 3 장 16 절)</u> <u>대비 65:60 (65 대 60)</u></p> <p><u>*6. (3)과 6. (4)로 분리함.</u></p>	<p>(3) 시와 분, 장과 절 <u>등을</u> 구별할 때 쓴다.</p> <p>예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u>예 두시언해 6:15(두시언해 제6권 제15장)</u></p> <p>(4) 의존명사 ‘대’가 쓰일 <u>자리</u>에 쓴다.</p> <p>예 65:60(65 대 60) <u>예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u></p>
<신 설>	<p>[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p>
4. 빗금(/)	7. 빗금(/)
<p>(1) <u>대응, 대립되거나 대등한 것을 함께 보이는 단어와 구, 절</u> 사이에 쓴다.</p> <p><u>남궁만/남궁 만 백이십오 원/125 원</u> <u>착한 사람/악한 사람</u> <u>맞닥뜨리다/맞닥트리다</u></p>	<p>(1) 대비되는 두 개 이상의 어구를 묶어 나타낼 때 <u>그</u> 사이에 쓴다.</p> <p>예 먹이다/먹히다 예 남반구/북반구 예 금메달/은메달/동메달 예 ()이/가 우리나라의 보물 제1호이다.</p>
<신 설>	<p>(2)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쓴다.</p> <p>예 100미터/초 예 1,000원/개</p>
<신 설>	<p>(3) 시의 행이 바뀌는 부분임을 나타낼 때 쓴다.</p> <p>예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 <u>어 있네</u></p>
<신 설>	<p>다만, 연이 바뀔을 나타낼 때는 두 번 겹쳐 쓴다.</p> <p>예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 <u>이 / 꽃이 피네 //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u> <u>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u></p>
<신 설>	<p>[붙임] 빗금의 앞뒤는 (1)과 (2)에서는 붙여 쓰며, (3)에서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단, (1)에서 대비되는 어구가 두 어절 이상인 경우에는 빗금의 앞뒤를 띄</p>

현행(1988년~)	개정안
	<u>어 쓸 수 있다.</u>
(2) 분수를 나타낼 때에 쓰기도 한다. 3/4 분기 3/20	<삭 제>
Ⅲ. 따옴표 [引用符]	
1. 큰따옴표(“ ”), 겹낫표(『 』)	8. 큰따옴표(“ ”)
가로쓰기에는 큰따옴표, 세로쓰기에는 겹낫표를 쓴다. 대화, 인용, 특별 어구 따위를 나타낸다.	<삭 제>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에 쓴다. “전기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책을 보았을까?” “그야 등잔불을 켜고 보았겠지.”	(1) 글 가운데서 직접 대화를 표시할 때 쓴다. 예 “어머니, 제가 가겠어요.” “아니다. 내가 다녀오마.”
(2) 남의 말을 인용할 경우에 쓴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다.”라고 하였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한 학자가 있다.	(2)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쓴다. 예 나는 “어, 광훈이 아니냐?” 하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예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합니다.”라는 시구를 떠올렸다. 예 편지의 끝머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편지에 사진을 동봉했다고 하셨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2. 작은따옴표(‘ ’), 낫표(「 」)	9. 작은따옴표(‘ ’)
가로쓰기에는 작은따옴표, 세로쓰기에는 낫표를 쓴다.	<삭 제>
(1)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들어 있을 때에 쓴다. “여러분! <u>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u> 고 합니다.”	(1)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그는 “여러분! <u>‘시작이 반이다.’</u> 라는 말 들어 보셨죠?”라고 말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2) 마음 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에 쓴다.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u>깜짝 놀라겠지.</u> ’	(2)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쓴다. 예 나는 ‘일이 다 틀렸나 보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 ‘이번에는 꼭 이기고야 말겠어.’ 호연이는 마

현행(1988년~)	개정안
	<u>음속으로 몇 번이나 그렇게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u>
<u>[붙임]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드리네포 대신에 쓰기도 한다.</u> <u>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u>	<삭 제>
<u>IV. 묶음표[括弧符]</u>	
1. 소괄호(())	10. 소괄호(())
(1) <u>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u> 쓴다. <u>커피(coffee)는 기호 식품이다.</u> <u>3·1 운동(1919) 당시 나는 중학생이었다.</u> <u>‘무정(無情)’은 춘원(6·25 때 납북)의 작품이다.</u> <u>니체(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u>	(1) 주석 <u>이나 보충적인 내용</u> 을 덧붙일 때 쓴다. <u>예</u> 니체(독일의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다. <u>예</u> 2014. 12. 19.(금) <u>예</u> 문인화의 대표적인 소재인 사군자(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고결한 선비 정신을 상징한다.
<신 설>	(2)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쓴다. <u>예</u> 기호(嗜好), 자세(姿勢) <u>예</u> 커피(coffee), 에티켓(étiquette)
<신 설>	(3)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쓴다. <u>예</u> 학교에서 동료 교사를 부를 때는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u>예</u>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임금이다.
<신 설>	(4) 회곡 등 대화를 적은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낼 때 쓴다. <u>예</u> 현우: (가쁜 숨을 내쉬며) 왜 이렇게 빨리 뛰어? <u>예</u> “관찰한 것을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상상력이 생겼나 봐요.” (웃음)
(3) <u>빈</u> 자리임을 나타낼 <u>적에</u> 쓴다. <u>우리 나라</u> 의 수도는 ()이다.	(5) 내용이 들어갈 자리임을 나타낼 때 쓴다. <u>예</u> 우리나라의 수도는 ()이다. <u>예</u> 다음 빈칸에 알맞은 조사를 쓰시오. <u>민수가 할아버지() 꽃을 드렸다.</u>
(2) 특히 기호 또는 기호적인 구실을 하는 문자,	(6)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현행(1988년~)	개정안
<p><u>단어, 구</u>에 쓴다.</p> <p>(1) 주어 (ㄱ) 명사 (라) 소리에 관한 것</p>	<p><u>등</u>에 쓴다.</p> <p>예) 사람의 인격은 (1) 용모, (2) 언어, (3) 행동, (4) 덕성 등으로 표현된다. 예) (가) 동해, (나) 서해, (다) 남해</p>
<p>2. 중괄호({ })</p> <p>여러 <u>단위</u>를 <u>동등하게</u> 묶어서 보일 때<u>에</u> 쓴다.</p> <p>주격 조사 { 이 가 }</p> <p>국가의 3 요소 { <u>국토</u> 국민 주권 }</p>	<p>11. 중괄호({ })</p> <p>(1)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u>요소</u>를 <u>세로로</u> 묶어서 보일 때 쓴다.</p> <p>예) 주격 조사 { 이 가 }</p> <p>예) 국가의 <u>성립</u> 요소 { <u>영토</u> 국민 주권 }</p>
<p><신 설></p>	<p>(2)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쓴다.</p> <p>예)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로, 까지} 갔어요.</p>
<p>3. 대괄호([])</p> <p>(2) <u>묶음표</u> 안에 또 <u>묶음표</u>가 있을 때<u>에</u> 쓴다.</p> <p><u>명령에 있어서의 불확실[단호(斷乎)하지 못함]</u>은 복종에 있어서의 불확실[모호(模糊)함]을 낳는다.</p>	<p>12. 대괄호([])</p> <p>(1) <u>괄호</u> 안에 또 <u>괄호</u>를 쓸 필요가 있을 때 <u>바깥쪽의 괄호</u>로 쓴다.</p> <p>예) 어린이날이 새로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어린이들에게 경어를 쓰라고 하였다.[윤석중 전집(1988), 70쪽 참조] 예) 이번 회의에는 두 명[이혜정(실장), 박철용(과장)]만 빼고 모두 참석했습니다.</p>
<p>(1) <u>묶음표</u> 안의 말이 바깥 말과 음이 다를 때 <u>에</u> 쓴다.</p> <p>나이[年歲] 낱말[單語] 손발[手足]</p>	<p>(2)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쓴다.</p> <p>예) 나이[年歲] 예) 낱말[單語] 예) 손발[手足]</p>
<p><신 설></p>	<p>(3) 원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나 논평 등을 덧붙일 때 쓴다.</p> <p>예) 그것[한글]은 이처럼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과학적인 문자이다. 예) 신경준의 《여암전서》에 “삼각산은 산이 모두 돌 봉우리인데, 그 으뜸 봉우리를 구름 위에 솟아 있다고 백운(白雲)이라 하며 [이하 생략]”</p>

현행(1988년~)	개정안
	<u>예</u>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원문에는 ‘업다’임.]
<신 설>	13. 겹낫표(『 』)와 겹화살괄호(《 》)
<신 설>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u>예</u>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u>예</u> 『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u>예</u>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 <u>예</u>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신 설>	[붙임] 겹낫표나 겹화살괄호 대신 큰따옴표를 쓸 수 있다. <u>예</u>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이다. <u>예</u>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신 설>	14. 홑낫표(「 」)와 홑화살괄호(< >)
<신 설>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u>예</u>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예</u>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u>예</u>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u>예</u>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u>예</u> 백남준은 2005년에 <엄마>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신 설>	[붙임] 홑낫표나 홑화살괄호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 <u>예</u>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u>예</u> ‘한강’은 사진집 “아름다운 땅”에 실린 작품이다.
V. 이음표 [連結符]	
1. 줄표(一)	15. 줄표(一)

현행(1988년~)	개정안
<u>이미 말한 내용을 다른 말로 부연하거나 보충함을 나타낸다.</u>	<삭 제>
<신 설>	<p>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의 앞뒤에 쓴다.</p> <p>예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 —’이다.</p> <p>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p>
<신 설>	<p>다만, 뒤에 오는 줄표는 생략할 수 있다.</p> <p>예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역사 바로잡기 — 근대의 설정’이다.</p> <p>예 ‘환경 보호 — 숲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p>
<신 설>	[붙임] 줄표의 앞뒤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p>(1) 문장 중간에 앞의 내용에 대해 부연하는 말이 끼어들 때 쓴다.</p> <p>그 신동은 네 살에 — 보통 아이 같으면 천자문도 모를 나이에 — 벌써 시를 지었다.</p>	<삭 제>
<p>(2) 앞의 말을 정정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 쓴다.</p> <p>어머님께 말했다가 — 아니, 말씀드렸다가 — 꾸중만 들었다.</p> <p>이건 내 것이니까 — 아니, 내가 처음 발견한 것이니까 —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다.</p>	<삭 제>
2. 붙임표(-)	16. 붙임표(-)
<신 설>	<p>(1) 차례대로 이어지는 내용을 하나로 묶어 열거할 때 각 어구 사이에 쓴다.</p> <p>예 멀리뛰기는 도움닫기-도약-공중 자세-착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p> <p>예 김 과장은 기획-실무-홍보까지 직접 발로 뛰었다.</p>
<신 설>	(2) 두 개 이상의 어구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고자 할 때 쓴다.

현행(1988년~)	개정안
	<p>예 드디어 서울-북경의 항로가 열렸다.</p> <p>예 원-달러 환율</p> <p>예 남한-북한-일본 삼자 관계</p>
<p>(1)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에, 또는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p> <p>겨울-나그네 불-구경 손-발 휘-날리다 슬기-롭다 -(으)르걸</p>	<삭 제>
<p>(2)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쓴다.</p> <p>나일론-실 디-장조 빛-에너지 염화-칼륨</p>	<삭 제>
3. 물결표(~)	17. 물결표(~)
<p>(1) ‘내지’라는 뜻에 쓴다.</p> <p>9 월 15 일 ~ 9 월 25 일</p>	<p>기간이나 거리 또는 범위를 나타낼 때 쓴다.</p> <p>예 9월 15일~9월 25일</p> <p>예 김정희(1786~1856)</p> <p>예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p> <p>예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p>
<신 설>	<p>[붙임] 물결표 대신 붙임표를 쓸 수 있다.</p> <p>예 9월 15일-9월 25일</p> <p>예 김정희(1786-1856)</p> <p>예 서울-천안 정도는 출퇴근이 가능하다.</p> <p>예 이번 시험의 범위는 3-78쪽입니다.</p>
<p>(2) 어떤 말의 앞이나 뒤에 들어갈 말 대신 쓴다.</p> <p>새마을: ~ 운동 ~ 노래 -가(家): 음악~ 미술~</p>	<삭 제>
VI. 드러냄표〔顯在符〕	
1. 드러냄표(·, °)	18. 드러냄표(·)와 밑줄()
<p>· 이나 ° 을 가로쓰기에는 글자 위에, 세로쓰기에는 글자 오른쪽에 쓴다.</p> <p>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p> <p>한글의 본 이름은 훈민정음이다.</p>	<p><삭 제></p> <p>문장 내용 중에서 주의가 미쳐야 할 곳이나 중요한 부분을 특별히 드러내 보일 때 쓴다.</p> <p>예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p>

현행(1988년~)	개정안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u>하는 문제</u> 이다.	<u>예</u>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u>예</u> 지금 필요한 것은 <u>지식</u> 이 아니라 <u>실천</u> 입니다. <u>예</u>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u>아닌</u> 것은?
<신 설>	<u>[붙임] 드러냄표나 밑줄 대신 작은따옴표를 쓸 수 있다.</u> <u>예</u> 한글의 본디 이름은 ‘훈민정음’이다. <u>예</u> 중요한 것은 ‘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u>예</u> 지금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u>예</u> 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
<u>[붙임] 가로쓰기에서는 밑줄(____, ~~~~~)을 치기도 한다.</u> <u>다음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것은?</u>	<삭 제>
<u>VII. 안드러냄표 [潛在符]</u>	
<u>1. 숨김표(××, ○○)</u> <u>알면서도 고의로 드러내지 않음을 나타낸다.</u>	<u>19. 숨김표(○, ×)</u> <삭 제>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의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1) 금기어나 공공연히 쓰기 어려운 비속어 <u>임을 나타낼 때</u> ,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u>예</u> 배운 사람 입에서 어찌 ○○○란 말이 나올 수 있느냐? <u>예</u> 그 말을 듣는 순간 ×××란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다.
(2) 비밀을 유지 <u>할 사항일 경우, 그 글자의 수효만큼</u> 쓴다.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2) 비밀을 유지 <u>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임을 나타낼 때</u> 쓴다. <u>예</u> 1차 시험 합격자는 김○영, 이○준, 박○순 등 <u>모두 3명이다.</u> <u>예</u> 육군 ○○ 부대 ○○○ 명이 작전에 참가하였다. <u>예</u> 그 모임의 참석자는 김×× 씨, 정×× 씨 등 5명이었다.
<u>2. 빠짐표(□)</u> <u>글자의 자리를 비워 둘을 나타낸다.</u>	<u>20. 빠짐표(□)</u> <삭 제>

현행(1988년~)	개정안
(1) 옛 비문이나 서적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u>예</u>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大師爲法主□□賴之大□薦 (<u>옛 비문</u>)	(1) 옛 비문이나 <u>문헌</u> 등에서 글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글자의 수효만큼 쓴다. <u>예</u> 大師爲法主□□賴之大□薦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2) 글자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나타낼 때 쓴다. <u>예</u> 훈민정음의 초성 중에서 아음(牙音)은 □□□의 석 자다.
3. 줄임표(……)	21. 줄임표(……)
(1) 할 말을 줄였을 때 <u>예</u> 쓴다.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철수가 나눴다.	(1) 할 말을 줄였을 때 쓴다. <u>예</u>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u>민</u> 수가 나눴다.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u>예</u> 쓴다. “빨리 말해!” “…….”	(2) 말이 없음을 나타낼 때 쓴다. <u>예</u> “빨리 말해!” “…….”
<신 설>	(3) 문장이나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쓴다. <u>예</u> ‘고유’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본디부터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같은 역사적 환경에서 공동의 집단생활을 영위해 오는 동안 공동으로 발견된, 사물에 대한 공동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한국의 고유 사상이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 설>	(4) 머뭇거림을 보일 때 쓴다. <u>예</u>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예외 없이 눈물만…… 흘렸다.”
<신 설>	[붙임 1]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다. <u>예</u>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눴다. <u>예</u>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신 설>	[붙임 2] 점은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u>예</u> “어디 나하고 한번…” 하고 민수가 나눴다. <u>예</u> “실은… 저 사람… 우리 아저씨일지 몰라.”
<신 설>	[붙임 3] 줄임표는 앞말에 붙여 쓴다. 다만, (3)

현행(1988년~)	개정안
	<u>에서는 줄임표의 앞뒤를 띄어 쓴다.</u>